

같은 날 시작한 새 월화드라마 누가 웃었나



MBC '사생결단 로맨스',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JTBC '라이프'... 같은 날 시작한 새 월화드라마의 첫 방송은 어땠을까.

23일은 세 편의 새로운 드라마가 출발하는 날이었다. MBC '사생결단 로맨스'와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오후 10시에, JTBC '라이프'는 오후 11시에 시청자들을 처음 만났다.

◇ 시골벽적인 호르몬 로맨스 '사생결단 로맨스'

제목에서부터 로맨스를 내건 '사생결단 로맨스'는 '로코'에 강한 제작진과 배우들을 앞세웠다. '로맨스가 필요해 1'을 연출한 이창한 감독, '치즈 인 더 트랩'의 김남희 작가와 지현우·이시영이 뽐났다.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자주 폭주하는 과격한 신경외과의 한승주(지현우 분)와 육포소신이 과다 분비되는 내분비내과 의사 주인아(이시영 분)가 만들어 갈 '호르몬 로맨스'라는 점도 독특한 포인트다.

첫 방송에서는 병원에서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의사 한승주의 거친 면모가 도드라졌다. 다른 사람들은 특유의 성질머리 때문에 한승주에게 다가가기 꺼렸으나 주인아는 호르몬에 원인이 있다며 오히려 그에게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두 사람은 서로 연인 과거사가 있었다. 한승주는 연인을 잡으러 가는 친구를 쫓아가다 우연히 친구의 사고를 목격했고, 본인 또한 큰 사고를 당했다. 드라마는 주인아의 사진을 비추며, 친구가 만나려 했던 사람이 주인아임을 암시했다.

이때 주인아는 한승주의 주치의의 말을 믿어 왔다. 한승주는 과거 기억 때문에 주인아에게 날 선 말을 하고 진료를 거부했으나, 주인아는 꼼꼼히 한승주를 관찰해 그의 이상 행동을 알아차린 뒤 높은 테스토스테론 농도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사생결단 로맨스'는 이른바 '풀 아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이하고 엉뚱한 면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나와 전반적으로 시달림적이고 활기찬 분위기가 시청자들도 독특한 캐릭터와 만화 같은 연출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시청률 면에선 조금 아쉬웠다. 시청률 집계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사생결단 로맨스' 1회는 4.1%, 2회는 3.5%의 시청률을 보였다. 지상파 3사 중 3위였다.

MBC '사생결단' 유쾌 발랄 전개...시청률 아쉬워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 동시간대 1위로 순항 '라이프', JTBC 역대 드라마 첫 방송 최고시청률

◇ 열일곱에 머무른 서른,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는 서른 살이 되었지만 열일곱에 머물러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뤄 공금증을 자극한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피노키오', '다시 만난 세계', '고효의 별이 빛나는 밤에' 등을 맡아 특유의 청량하고 감각적인 연출력을 뽐낸 조수원 감독과 '올드미스 다이어리', '고교 처세왕', '그녀는 예뻤다' 등을 쓴 로코 메이커 조성희 작가가 유기투합한 작품이다.

23일 방송된 첫 회에서는 바이올린 천재 우서리(박시은 분)와 그를 남몰래 짝사랑하는 소년 공우진(윤찬영 분)의 안타까운 사연이 나왔다. 친구 노수미(이서연 분)의 체육복을 잘못 입고 귀가하는 바람에 우진이 서리의 이름을 착각한 것이다.

어느 날, 서리와 우진은 우연히 같은 버스에 타게 됐지만 우진은 서리를 보고 당황해 버스에서 내렸다. 이때 서리 바이올린 케이스에 달린 키링이 우진의 화구 통에 걸려 떨어졌고, 우진은 서리에게 돌려주고자 내린 버스를 쫓았으나 12층 추락사고가 일어난 것만 보게 된다.

그 후 13년이 지났으나, 서리(신혜선 분)와 우진(양세준 분)은 각자 열일곱으로 머물러 있었다. 서리는 오랜 시간 의식불명 상태에 있었고, 우진은 죄책감 때문에 세상과 자신을 차단하며 사는 무대 디자이너가 됐다.

병원 탈출을 감행한 서리는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고, 키우던 개가 여전히 있는 걸 보고 안심했다. 하지만 그 집엔 우진이 살고 있었다. 가정부 제니퍼(예지원 분)는 조카가 오기로 돼 있다는 말에 서리를 의심 없이 집안에 들였고, 서리와 우진의 인연은 이렇게 다시 시작했다.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인공들이 과거에 범했던 죄를 13년 만에 보낸다는 점이다. 특히 큰 사고를 당해 누운 채로 13년을 보내다 눈 떠보니 서른 살이 된 서리가 겪는 부조화는 앞으로도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률도 잘 나왔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1회는 5.7%, 2회는 7.1%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 초반부터 공금증 자이낸 '라이프'

'라이프'는 지난해 방송 당시부터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올해 백상예술대상 TV 부문 대상의 영광을 안은 '비밀의 숲' 이수연 작가의 신작이다. '더어 마이 프렌즈', '명불허전' 등을 연출한 홍중찬 감독이 어떤 연출을 보여줄지도 관건이다.

거기에 조승우, 유제명, 이규형 등 '비술' 출연 배우들과 이동욱, 원진아, 문소리, 문성근, 천호진 등이 대작으로 꼽혔다.

'라이프'는 삼국대학교 병원을 배경으로 한 의학드라마로, 목숨에서 일어나는 격렬한 병원내부 반응처럼, 지키려는 자와 바꾸려는 자의 신념의 충돌을 다뤘다.

'라이프'는 병원장 이보훈(천호진 분)의 죽음으로 시작했다. 삼국대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해 대기업 출신인 총괄 사장 구승효(조승우 분)가 투입되면서 큰 변화를 맞은 삼국대 병원 이야기가 숨 가쁘게 그려졌다.

충추하고 탄탄한 이야기로 '백발 회수 전문가'라는 별명을 지닌 이 작가는 '라이프'에서도 장기를 유감 없이 발휘했다. 첫 회에 나타난 수수계간 해도 여럿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이보훈 죽음의 진실은 무엇인지가 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지만 예진우(이동욱 분)는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고 경찰을 직접 찾아 진실을 밝히려 했다.

이밖에도 왜 이보훈이 죽기 전 부원장 김태상(문성근 분)이 그렇게 싸워야 했는지, 예진우의 동생 예진우(이규형 분)는 왜 종종 환자로 나타나는지, 평소 신망이 높던 이보훈이 병원 지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사실인지, 삼국대 3개 과가 정말 지방 의료원으로 옮겨가는지 등 앞으로 풀려야 할 이야기가 가득했다.

몰입도 있는 첫 방송을 선사한 '라이프'는 시청률 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뒀다.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4.3%로 JTBC 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첫 회 시청률을 기록했다. 최고의 1분은 성과급제 확대 시행 지침에 분노한 병원장 이보훈에게 예진우가 조언하는 장면으로 6%까지 뛰었다.

'인랑 · 신과 함께 · 공작 · 목격자' 극장가 여름대전

진짜 경쟁은 이제 시작이다. 상반기 '블랙팬서' '버닝' '인피니트 워' '쥬리키 월드:폴른 킹덤' 등 할리우드 대작에 밀렸던 한국영화들이 기지개를 켜다 대형 배급사의 기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며 극장가 왕좌를 잡기 위해 나선다. 워너브라더스코리아의 '인랑', 롯데엔터테인먼트의 '신과 함께: 인과연', C엔터테인먼트의 '공작', NEW의 '목격자'가 출격 준비를 마쳤다. 뜨거운 여름, 극장가도 치열한 경쟁으로 뜨겁게 달궈진 상태다.

■ 김지운표 SF물 '인랑'

가장 먼저 빅4의 포문을 여는 '인랑'은 남북한이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을 선포한 후 반통일 테러단체가 등장한 혼돈의 2029년을 그린다. 경찰조직 특기대와 정보기관인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절대 권력기관 간의 숨 막히는 대결 속 늑대로 불리는 인간병기 인랑의 활약을 그린 작품이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인 오시이 마모루 감독의 원작을 김

지운 감독이 실사화 시켰다. 근미래를 배경으로 김지운 감독은 원작을 오마주하면서 한국사회에 맞게 변형시켰다. 때 작품마다 새 장르에 도전하고 비주얼적으로 완벽함을 보여줬던 김지운 감독은 '인랑'을 통해서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소재와 색다른 액션, 비주얼로 압도한다.

다만 새롭고 신선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미래 배경부터 강화복 액션이라는 설정까지 관객들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특히 예상보다 로맨스 색이 강해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또 한번 1000만?... '신과 함께-인과연'

지난해 개봉한 '신과 함께-죄와 벌'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 그 기세를 이어갈 후속작인 '신과 함께-인과연'도 1000만 각을 점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신과 함께-인과연'은 환생이 약속된 마지막 49번째 재판

을 앞둔 저승삼자사가 그들의 1000년 전 과거를 기억하는 성주신을 만나 이승과 저승, 과거를 넘나들며 잃어버린 비밀의 연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인간들을 저승에 안내했던 삼자사의 과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 '신과 함께-인과연'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1편에서 히든카드 역할을 맡았던 최우성 감독(하정우)과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성주신 역의 마동석이 흥행 요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편이 1400만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신과 함께-인과연'의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1편의 가족애를 강조한 최우성 감독 드라마에 거부감을 느끼는 관객이려면 2편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8월1일 개봉.

■ 한국형 첩보 스릴러 등장 '공작'

8월8일 개봉을 앞둔 윤종빈 감독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핵의 실체를 파헤치던 안기부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첩보극이다. '용서받지 못한 자'부터 '남북전쟁'의 전성기 '나쁜놈들 전성시대' '군도:민란의 시대'까지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윤종빈 감독의 신작이다.

첩보물 하면 '007'이 떠오르고 그 동안 그려졌던 남북 첩보 영화는 대부분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간첩들을 중심으로 했다. 하지만 '공작'은 그걸 뒤집어 북한으로 간 스파이라는 설정, 액션보다 말에 집중한 새로운 한국형 첩보물이란 점에서 남다르다. 제7회 칸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라는 것도 관객들의 관심을 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 무드가 조성된 시기에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남북 관계를 이야기 한 영화는 수없이 등장해왔기 때문에 관객들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다. 여기에 '공작'의 주요 출연진은 모

두 남성이자, 최근 여성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점도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 여름엔 스릴러 '목격자'

여름 대전 마무리를 장식하는 작품은 이성민 주연의 '목격자'다. '목격자'는 아파트 한복판에서 벌어진 살인을 목격한 순간 범인의 다음 타겟이 되어버린 목격자와 범인 사이의 충격적 추격 스릴러다.

'목격자'는 현실적인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릴이 2013년 개봉했던 영화 '숨비폭탄'을 떠오르게 한다. 여름에 걸 맞는 스릴러 장르라는 점도 관객들을 극장으로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1차 예고편 조회수만 450만뷰를 넘겼다. 빅4 중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차태현이 흥보 요점 역할을 하지 해주고 있다. '목격자'는 차태현의 형인 차지현 대표가 제작한 작품으로 차태현 효과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빅4 작품 중에서 가장 사이드작은 작품이나 의외의 박빙이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오늘의 운세 2018년 7월 25일 수요일 (음력 6월 13일)



▶**성운** 법조인이면 혹시 불미스러운 돈이 흐를 조짐이 보이니 현명히 판단하라. 판매업 종사자는 주위의 시기, 질투가 그치지 않는다. 4, 5, 6월생은 동쪽에 물건을 진열하라. 사, 자, 표 성씨 혼자 하는 일은 손조롭게 진행된다.



▶**사기** 편리한 것에 너무 길든 나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포기하고 만다. 끈기와 참용성이 부족하면 그만쯤 낙담해서 의지력과 창의력마저 시들어 버린다. 자, 비, 흥 성씨는 지금의 고달픔이 미래의 평온함을 이룬다.



▶**운운**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서 흔들려 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자만심을 버리라. 기, 사, 표 성씨는 내가 아니더라도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지운** 천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라. 경험과 겸손은 당신의 부자연스러운 마음에 평화를 준다. 기, 미, 자 성씨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생활하라. 길게 보되 의리심을 버리라. 2, 4, 9월생은 동업 운이 트인다.



▶**용운** 책장 속 책은 보지 않으면 먼지만 쌓인다. IQ가 아무리 높다 해도 머리를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창의력은 시든다. 2, 5, 10월생은 보람과 즐거움의 지표라고 생각하면 짜증도 줄어든다. 갈색이 안정을 준다.



▶**진운** 모든 물건은 인간이 만든다. 5, 9, 11월생은 내 안목이 부족해 찌지 못할 뿐이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다. 뱀, 원숭이, 양뿔에게 도움을 청하라.



▶**말운** 가까이 있을 때는 미워했지만, 멀리 가버리고 나니 자주 보고 싶어진다. 1, 3, 10월생 기, 표, 흥 성씨는 인내가 좋은 길을 찾아 떠난다면 기본 좋게 보내주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이다.



▶**양운** 4, 7, 10월생 남쪽에 이력서를 내면 반가운 소식이 온다. 쓸데없는 낭비라 생각하지 말고 귀가할 때 선물을 아끼지 말라. 마음이 한층 편해진다. 자, 비, 흥성씨 자동차 운송업 종사자는 사업이 평탄하지 못하니 친절을 모소 실천하라.



▶**원숭이** 아랫사람에게 따끔한 충고도 좋지만, 칭찬도 아끼지 말라. 3, 8, 11월생 동쪽에 거러치가 있으면 그들도 칭찬하라. 메아리가 돼 내게 되돌아온다. 미, 천, 흥 성씨 손재수 있으니 집에 돈을 두지 말라. 투기는 금물이다.



▶**닭운** 인생에서 연습은 없다. 현재 위치에서 후회하지 말고 밀고 나아가라. 육체는 고달파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보함, 중권업 종사자는 신용이 우선이다. 끈기와 의지도 필요하다. 1, 3, 7월생은 애정에서 눈물을 흘리겠다.



▶**개운** 문이 열리기만 바라지 말고 지혜와 용기로 열려고 노력하라. 자만심과 나태함을 버릴 때다. 노력한 뒤에야 보람이 따른다. 2, 7, 11월생 중권은 불운하다. 기, 비, 흥 성씨 검은색은 피하라. 감기, 기관지 건강을 특히 챙겨야 한다. 동쪽이 길하다.



▶**돼지** 정신적으로 여유 있는 의식 세계를 지닌 나다. 외딴 섬에서 산다고 해도 고립감을 느끼지 않는다. 미, 천, 흥 성씨 자질이 부부는 분수만 지키면 활력을 되찾고 상승한다. 5, 7, 9월생 남쪽으로 변동은 문제없으니 추진하라.